

독서수업
지도안
교사용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이항안 글 | 손지희 그림 | 웅진주니어 | 116쪽

독서수업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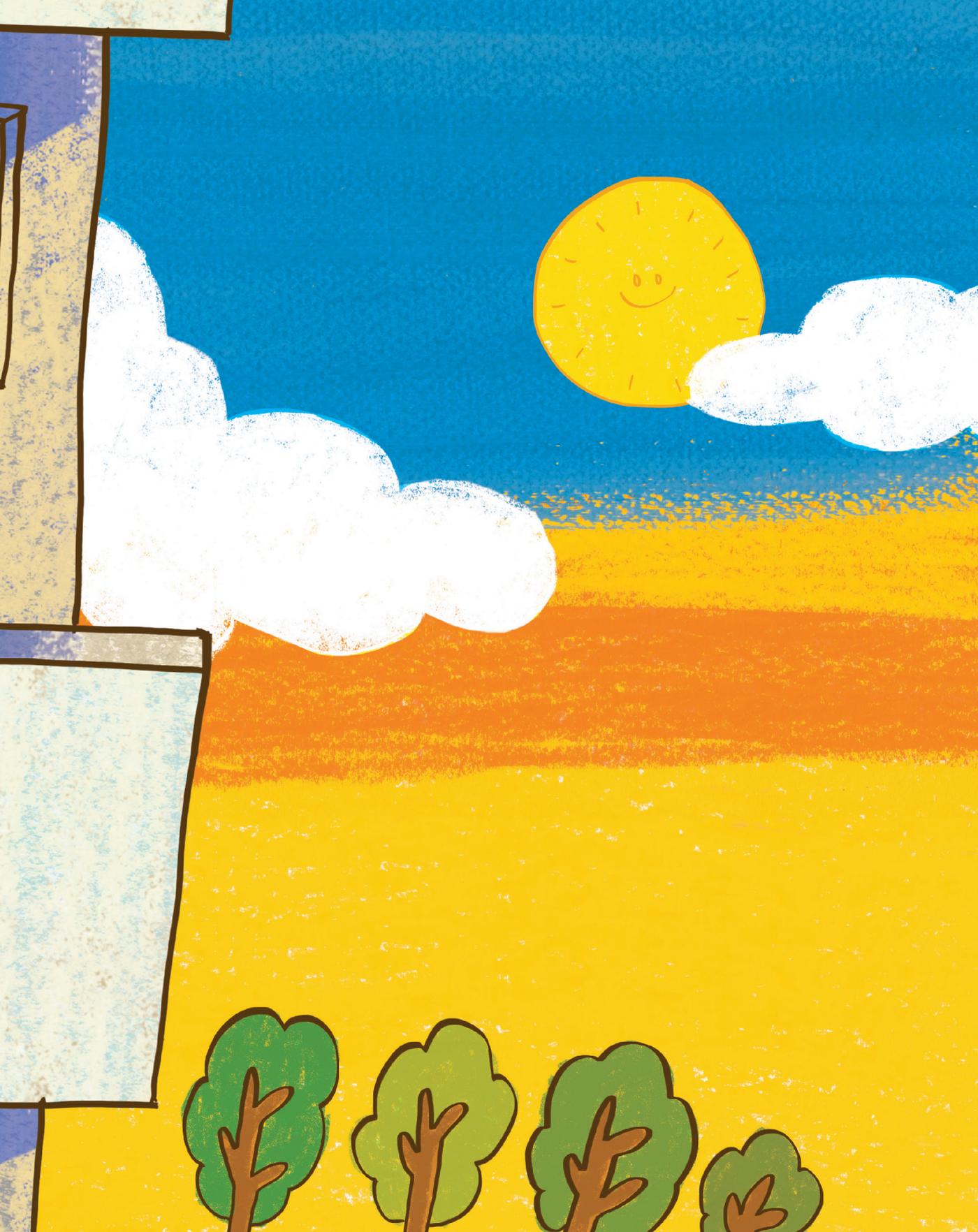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독서 준비	1	책 읽기 계획 세우기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읽을 책 정하기 ·책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표지 ·책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차례	학생 1인에 책이 1권씩 모두 있어야 함.
2	독서	2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읽기 방법 정하기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책 읽기 *모둠 활동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 *발표	3차시 동안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기.
		3		
		4		
3	독서 후	5	생각 나누기 ·책 내용 간추리기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발표·감상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발표·감상	학생들에게 독후활동지를 나누어 주기.
		6	독후활동지 ·어휘력 기르기 ·독해력 기르기	
		7	독후활동지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발표·의견 나누기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발표·의견 나누기	
		8	정리하기 ·독서 활동 돌아보기 *발표 ·더 찾아 읽기 *발표	

■ 교육과정 내용 요소

- 읽기 : 중심 생각 파악, 내용 간추리기, 경험과 느낌 나누기
- 쓰기 : 문단 쓰기, 쓰기에 대한 자신감
- 문학 : 인물-사건-배경,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표현



독서 지도안





☞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책을 누구와 읽을지 정해 봅시다.

책은 혼자서 읽을 수도 있고, 같은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을 수도 있어요.

- ① 혼자 :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혼자서 읽어요.
- ② 짝 : 짝과 읽고 싶은 책을 골라 함께 읽어요.
- ③ 모둠 : 모둠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함께 읽어요.
- ④ 학급 : 책을 한 권 골라 반 친구들과 함께 읽어요.

- 혼자 읽으면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어서 좋다.
- 반에서 모두 같은 책을 읽으면 읽고 나서 생각을 나누기 좋다.
- 학년에서 같은 책을 정해 읽으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를 누구와 읽기로 정했나요?

혼자 짝 모둠 학급

TIP 혼자서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면 돼요. 짝과 보려고 할 때는 짝이 좋아할 만한 책을 생각해 보고 추천하면 좋아요. 모둠 친구들과 읽을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만한 내용이 있는지 책을 미리 살펴보고 추천하는 게 좋아요. 학급에서 함께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인물, 배경, 사건 등 각 모둠별로 발표 내용을 나뉘 맡은 후 그것 위주로 책을 읽고 발표하면 좀 더 깊이 있는 독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을 누구와 읽기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각자 생각해보고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 혼자 : (예) 혼자 집중해서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읽고 싶다.
- 짝 : (예) 짝과 함께 읽으면 읽은 부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 모둠 : (예)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연극하듯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 학급 : (예) 반 전체가 같은 책을 읽는 것이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 모두 동시에 책 읽기가 끝나서 좋을 것 같다.

발표하기 지도 주안점

- 서로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읽을 책 정하기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읽을 책을 정해 봅시다.

📖 책을 고르는 방법 알아보기

- ① 책 내용이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가요?
- ② 쪽수가 읽기에 적당한가요? 적당하지 않다면 너무 적은가요, 많은가요?
- ③ 모르는 낱말의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예시) 책의 첫 부분을 읽어 봐서 이해가 잘되는지 알아보자.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주인공이라 흥미가 느껴져.

또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

· 읽을 책을 고를 때에는 집, 학급 문고, 학교 도서관, 지역 도서관 등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예시) 나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올 거야.

나는 학급 문고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가져올래.

TIP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읽을 책을 정해 봐요. 책을 고를 때는 책의 첫 부분을 읽어 봐서 이해가 잘 되는지, 책 쪽수가 읽기에 너무 많거나 적은 건 아닌지, 책 내용이 평소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지 등을 살펴보고 정하는 게 좋아요.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제목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일지 생각해요.
표지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예상해요.

TIP 표지는 책의 얼굴이에요. 표지에는 책 내용과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림과 제목이 들어가요. 간혹 제목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부제가 들어가기도 하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책을 지은 작가,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 그리고 상을 받으면 뽐내고 싶듯이 책도 상을 받거나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다면 표지에 드러내지요.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 표지 탐색하기

※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책 표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1단계 표지에 나타난 요소 파악하기

제목 :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

시리즈명 : 작은책마음

글쓴이 : 이향안

그린이 : 손지희

출판사 : 웅진주니어

2단계 ▶ 앞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 예상하기

💡 책 제목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를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예시답안) 중국집 별난반점의 헬멧똥이라는 배달부가 겪은 X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

💡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예시답안) 헬멧과 고글을 쓴 중국집 배달부가 오른손에는 철가방을, 왼손에는 연필을 쥐고 뒤돌아 보고 있다. 그를 안경 쓴 남자아이가 화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

3단계 ▶ 뒤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 ‘오동이가 ‘헬멧똥’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타 삼백을 먹고 싶어서 오동이가 단무지를 곱빼기로 주문했건만 헬멧똥이 빠뜨려서

💡 ‘오동이가 ‘헬멧똥’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 현관문에서 발견한 의문의 낙서이자 암호인 X가 집집마다 늘어가고, 연이어 일어난 도난 사건.

(가이드)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차례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어요.

TIP 차례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또한 책을 본 후 내용이나 문장을 찾아볼 때도 도움을 주지요.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책에 대한 정보 없이 책을 골라 볼 때 표지나 차례, 작가의 말 등은 독자들에게 책에 대한 정보를 주어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 차례 탐색하기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책의 5쪽 차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1. 단무지 없는 날	6
2. X	16
3. 삼지창만 치사동	25
4. \ \ \ 의 등장	38
5. 풀이내다	47
6. X \ \ \ \ \ 3 20	54
7. 사라진 낚시	71
8. X \ \ \ \ 6 22	77
9. 문명원 사건	88
10. 아쉬! 침범! 단무지 깎은 날	116

책의 5쪽 차례입니다.

- | | |
|-----------------------|-----------------------------|
| 1. 단무지 없는 날 ... 6 | 6. X \\\ \ \ \ \ 3 ... 20 |
| 2. X ... 16 | 7. 사라진 낙서 ... 71 |
| 3. 유치찬란 치사똥 ... 25 | 8. X \\\ \ \ 6 22 ... 77 |
| 4. \\\ \ \의 등장 ... 38 | 9. 운명의 시간 ... 88 |
| 5. 풀어내다! ... 47 | 10. 아삭! 짹! 단무지 같은 날 ... 106 |

💡 이 책은 몇 개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나요?

⇒ 10개

💡 차례의 제목 중에서 이야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말해봅시다.

⇒ 7. 사라진 낙서

💡 차례의 제목 중에서 암호와 관련된 것을 말해봅시다.

⇒ 2. X / 4. \\\ \ \의 등장 / 6. X \\\ \ \ \ \ 3 / 8. X \\\ \ \ 6 22

💡 차례의 제목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예) 3. 유치찬란 치사똥 / 이유 : 수준이나 정도가 엄청나게 낮은 유치찬란하고 치사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 이 책의 차례로 보아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은가요?

⇒ (예) 주인공이 다양한 낙서 암호를 발견하고 풀어내면서 사건이 전개될 것 같다.



📖 읽기 방법 정하기

어떤 방법으로 읽을까?

- 소리 내지 않고 혼자 읽기
- 친구와 번갈아 가며 읽기
- 선생님과 번갈아 가며 읽기
- 선생님이 읽어 주기
-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 혼자서 읽을 때,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며 읽을 때, 선생님이 읽어 주는 것을 들을 때 각각 좋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TIP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더욱 생동감이 느껴져 책에 몰입이 될 수 있습니다.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 읽기 방법 정하기

읽기 방법	읽기 계획 세우기
소리 내지 않고 혼자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점 : 책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지루하거나 잠이 올 수 있다.
친구와 번갈아 가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명이 함께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가? (짜꿍과 돌이/ 여럿이 모둠으로) · 무엇을 기준으로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가? (일정 분량씩 나누어 읽기/ 틀릴 때까지 읽기/ 대사를 나누어 읽기 등)
선생님과 번갈아 가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과 누가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지 정하기 · 무엇을 기준으로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지 정하기

선생님이 읽어 주기	· 좋은 점 : 또박또박하게 읽어 내용 전달이 정확히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책 전체를 미리 읽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 주면 상황과 분위기에 꼭 맞게 읽을 수 있다. 학생들이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 연극처럼 배역을 정해서 읽기 · 가족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기 등

※ 이야기를 실감 나게 읽는 방법

① 이야기의 상황을 생각하여 인물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봅니다.

↳ 이야기 속 인물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하여 마음을 짐작하여 봅니다.

②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여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로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읽습니다.

③ 이야기의 상황에 어울리는 몸짓을 하며 읽습니다.

※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 실감 나게 읽기

(예) 13쪽 “아차! 남남빌라! 미안, 미안! 깜빡했나 보다.”

⇨ 기억난 듯 미안한 목소리로 읽는다.

(예) 50쪽 “두 명이야. 아저씨하고 그 집 아들! 아들은 아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거야. 키가 엄청 크더라.”

⇨ 두 눈을 하얗게 홉뜨며 피곤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는다.

독서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책 읽기



📖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책 읽기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 가며 책을 읽어 봅시다.

-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은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해 두었다가 2~4쪽 단위로, 또는 한 챕터(장)마다 표시한 낱말을 모아서 뜻을 찾고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TIP 책을 보면서 모르는 낱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읽어 보세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보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 어휘 기록장 만들기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의 개수가 몇 개나 되었나요?

뜻을 알고 싶은 궁금한 낱말과 그 낱말이 나온 문장을 적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써보세요.

나오는 쪽	낱말	① 낱말이 나온 문장 / ② 낱말의 뜻
26쪽	섬뜩하다	① 실제로 본 헬멧똥은 인터폰으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똥똥하고 <u>섬뜩했다</u> . ② 뜻 :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
37쪽	탄성	① 오동이 입에서 <u>탄성</u> 이 터졌다. 온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도 쭉 빠졌다. ② 뜻 : 몹시 감탄하는 소리.
50쪽	흡뜨다	① 엄마가 두 눈을 하얗게 <u>흡뜨다</u> . '왜 하필 그걸 이런 날 묻니?'라는 뜻이다. ② 뜻 : 눈알을 위로 굴리고 눈시울을 위로 치뜨다.

75쪽	단서	① 어렵게 알아낸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② 뜻 :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
-----	----	---

모둠활동 모둠별로 각 사람이 조사한 내용을 모은 뒤,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정리하여 모음집을 만들어 봅니다.

- 낱말의 뜻을 조사하기 전과 뜻을 조사한 후에 그 낱말이 쓰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 낱말이 가진 여러 가지 뜻 중, 책 속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독서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



📖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해 보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요.

TIP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자는 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내 경험에 비춰 나만의 방식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서의 가치랍니다.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 ① 어떤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 ②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을 찾아봅니다.
- ③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표정과 모습을 살펴봅니다.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예) 책의 9쪽~10쪽

평소처럼 문은 열지 않은 채, 인터폰에 대고 소리만 질렀다. 배달 온 음식값을 치르는 오동이의 특별한 방법이다.

이 시간이면 오동이는 늘 혼자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8시, 그때까진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처럼 배달 음식을 시킬 땐 미리 우유 배달 봉투에 음식값을 넣어 둔다. 그럼 낯선 배달부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혼자 배달부를 맞아야 하는 오동이를 위해서 엄마가 생각해 낸 방법이었다. 엄마는 오늘 아침에도 오동이에게 단단히 일렀다.

“세상이 너무 흥흥해. 그러니까 절대 낯선 사람한테 문을 열어 주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아이디어 덕분에 헬멧똥 얼굴은 오늘도 인터폰 화면에서 이내 사라졌다. 다행이었다.
오동이는 헬멧똥이 돌아간 걸 확인하고 황급히 문을 열었다.

어떤 장면인가요?

⇒ 오동이가 배달 온 음식값을 치르는 특별한 방법이 나오는 장면이다. 오후 8시까지 혼자인 오동이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우유 배달 봉투에 음식값을 넣어 두어서 배달부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받고 음식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너무 흥흥하다고 생각한 엄마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 낸 방법이다.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 (가이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어떻게 배달 음식을 받고 음식값을 치르는지 말해 보게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표 책 속의 한 장면을 자유롭게 선택한 후, 비슷한 경험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독서 후

생각 나누기 : 책 내용 간추리기



📖 생각 나누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 책 내용 간추리기

-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서 책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 설명하는 글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간추리고, 이야기 글은 사건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봐요.

TIP 책 내용을 간추려 쓸 때는 먼저 중심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큰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이후 생각나는 대로 줄거리를 정리한 후, 쓴 글을 찬찬히 읽어 보면서 다시 글을 다듬습니다.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책 내용 간추리기

[책 내용 간추리기 지도법]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심 인물과 그 주변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 오동이, 헬멧똥, 엄마, 동네 아줌마, 도둑, 경찰 아저씨들 등

💡 이 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꼽아 보세요.

- ① 오동이는 현관문에 있는 낙서 암호 ○X를 발견했고, 이것을 헬멧똥이 한 짓이라고 생각한 것
- ② 오동이는 별난반점에 자장면을 시켰는데, 헬멧똥이 단무지를 빠뜨리고 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것
- ③ 오동이가 3층에 생긴 낙서들을 ○만 남기고 지우고 ○가 없던 집에는 까만 펜으로 그려 넣은 것

- ④ 오동이는 암호의 빗금 개수가 각 집의 가족 수이고, 숫자는 집이 텅 비는 시간인 것을 알아낸 것
- ⑤ 오동이는 배달을 하다가 낙서를 발견한 헬멧뿔과 도둑 사이의 치열한 머리싸움이라는 것을 안 것

💡 위 2에서 뽑은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 ② → ① → ④ → ③ → ⑤

(가이드)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꼭 들어가야 할 사건이 누락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위 3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내용을 이어서 쓰고 글을 다듬어 완성합니다.

📖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①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를 평가할 때에는 글에 나타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도록 합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쓰도록 합니다.
- ③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니도록 합니다.

독서 후

생각 나누기 :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 생각 나누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 그리기, 인물 편지, 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인상 깊은 장면	(예) 책의 22~24쪽 : 엄마와 아빠가 101호에 도둑이 들었고, 집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한 짓 같이라며 오동이에게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장면
그 까닭	(예) 오동이는 엄마와 아빠가 말한 좀도둑 소식은 뒷전이고 오로지 X생각만 하며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웃겼기 때문이다.

💡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생략)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봅니다.

TIP 주요 사건이지만 책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장면이나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가 변화한 장면 등을 그리면 좋아요. 글로 나타낼 때와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릴 때에도 인상 깊은 장면을 표현할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예) 책의 44~45쪽 : 오동이가 빌라 1층 계단을 급하게 뛰어올랐다가 아줌마의 팔꿈치와 오동이 어깨가 부딪혀서 오동이는 버럭 짜증을 냈고, 아줌마도 혀를 끝끝 차며 투덜거리는 장면을 두 등장인물이 엇갈리는 모습으로 구성하여 그린다.

(가이드) 오동이의 “에이! 뭐야?”와 아줌마의 “어머머! 요즘 애들은 정말…….”이라는 말을 넣고, 두 등장인물 모두 잔뜩 짜증이 난 표정이 드러나도록 그립니다.

발표·감상 모둠별로 서로 돌려보며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것을 감상하기.

독서

생각 나누기: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 생각 나누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 책 속 인물과 자신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 동그라미 두 개를 일부분이 겹치도록 그립니다.
- 동그라미가 겹치는 곳에는 등장인물과 자신이 비슷한 점을 쓰고, 겹치지 않는 곳에는 등장인물과 자신을 비교해 다른 점을 씁니다.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을 읽고 책 속 인물과 자신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예)

	등장인물 : 오동이	나
비슷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자장면과 단무지를 좋아한다. · 집에 혼자 있을 때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 암호를 추리하거나 증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면보다 단무지를 더 좋아한다. · 자신만의 생각으로 착각하거나 사람을 판단한다. · 엄마와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무지보다 자장면을 더 좋아한다. · 자신만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 엄마와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발표·감상 모둠별로 서로 돌려보며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것을 감상하기.

독서 후

독후활동지 : 어휘력 기르기



어휘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은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순간 오동이 머릿속은 영킨 (③ 실타래)처럼 복잡해졌다.
 - “알리바바 동화에서 X는 도둑들이 하는 (② 징표)였잖아.”
 - 그건 ‘날 잡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잡아 봐!’라는 (⑤ 선전 포고)와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 수시로 드나드는 아이들은 범행의 최대 (④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 순간 오동이는 사건의 (① 전말)이 눈앞에 그려졌다.
- (나) · 별난반점에도 ㉠옥에 티가 있지 뭐가. 바로 배달부인 헬멧뚱이다. ㉡
 -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 ㉣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전말 :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 ② 징표 :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 ③ 실타래 : 실을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한데 뭉치거나 감아 놓은 것.
- ④ 걸림돌 :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선전 포고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

2) (나)의 ㉗~㉙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㉗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
- ㉙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해설) ㉘과 뜻이 서로 비슷한 속담으로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범 잡아먹는 담비가 있다', '과리 위에 날라리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격언이나 잠언으로 일상에 필요한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서 후

독후활동지 : 독해력 기르기



독해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 돼요! 당장 갖다 주세요. 단무지!” / 오동이는 껍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했다. / “어쩌나, 오늘은 그냥 먹는 게…….”

오동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단무지를 빠트린 건 순전히 헬멧똥의 실수다. 오동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오동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 화가 났다. 억울했다. / 오동이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온 건 그 순간이었다. / “이 바보! 똥똥보 헬멧똥아!” /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인데도 오동이는 화들짝 놀랐다. 놀란 나머지 전화마저 뚝 끊어버렸다.

⇨ 책의 14~15쪽입니다.

(나) 사실 X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조그만 낙서였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낙서는 몇 시간 전, 헬멧똥이 다녀간 뒤에 생겼다는 사실이 첫 번째 증거다. / ‘오늘 우리 집을 다녀간 사람은 헬멧똥뿐이야. 어쩌면 아까 화가 나서 우리 집에 표시해 둔 건지도 몰라. 혼내 주려고 말이야. 조금 전에 몰래 와서 표시해 두고 갔나?’ / 그리고 보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평소에도 헬멧똥은 오동이를 싫어하는 눈치였다.

⇨ 책의 19쪽입니다.

1) (가)~(나)에서 ‘오동이’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 오동이는 **단무지**를 빠트린 헬멧똥에게 **단무지**를 갖다 달라고 통화했고,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거친말**을 했다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딱 끊었음

(나) : 오동이는 헬멧똥이 다녀간 뒤에 생긴 **X낙서**를 보고, 헬멧똥이 **화**가 나서 오동이를 혼내 주려고 몰래 와서 **우리집**에 **표시**해 두고 갔다고 생각했음

2) (가)~(나)에서 ‘오동이’가 ‘헬멧똥’에게 잘못된 말과 생각은 무엇인지 쓰시오.

⇒ 오동이는 윗사람인 헬멧똥에게 거친 말을 했고, 평소에도 헬멧똥은 자신을 싫어하는 눈치였다고 생각했다.

(해설) 오동이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손윗사람인 헬멧똥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바보! 똥똥보 헬멧똥아!”라고 거친 말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독서 후

독후활동지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302호와 303호는 단무지 갖다 준다고?”

○는 배달할 때 단무지 주는 집, X는 단무지를 안 주는 집, 그러니까 ○와 X는 헬멧똥의 단무지 배달 암호가 아닐까? 301호도 뭔가 미운 꼬투리를 잡힌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동이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이런 유치한 복수를 하다니! 치사한 헬멧똥!” / 헬멧똥의 정체는 ‘유치찬란 치사똥’이었다. / 추리에는 증거가 필요한 법이다. 오동이는 자신의 추리를 증명할 방법도 생각해 냈다. / “좋아! 그렇게 해 보면 돼!”

이제 곧 헬멧똥이 얼마나 ‘유치찬란 치사똥’인지 밝혀질 것이다.

⇒ 책의 32~33쪽입니다.

(나) 그때였다. 오동이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복도에서 마주 보이는 놀이터, 그곳 벤치에 헬멧똥이 앉아 있지 뭔가. / 헬멧똥의 행동은 수상쩍기만 했다. 빌라 건물을 올라다보며 가웃가웃, 그러다가 작은 노트에 뭔가를 굵적굵적……. 수상하다! 정말 수상하다! 왜 빌라 건물을 올라다보는 걸까? 대체 뭘 기록하고 있는 걸까?

순간 오동이 머릿속에 전깃불이 탁 켜졌다. / “집들을 감시하고 있어!”

⇒ 책의 45~46쪽입니다.

1) 윗글에서 ‘오동이’는 ‘헬멧똥’을 ‘유치찬란 치사똥’이라고 했고, ‘헬멧똥’이 집들을 감시한다며 수상하게 여겼다. 이러한 ‘오동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발표·의견 나누기

⇨ (예시답안) 오동이는 ○X 표시가 헬멧똥이 단무지를 주는 집과 안 주는 집이라고 해석해서 유치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또한 벤치에 앉아 있는 헬멧똥이 집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의심하고 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

(가이드) 오동이는 ○X를 헬멧똥의 배달 암호라고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멧똥이 유치한 복수를 한다며 치사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에서 ‘오동이’가 추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쓰시오.

⇨ 추리에는 증거가 필요한 법이고, 추리를 증명할 방법도 필요하다.

독서 후

독후활동지 : 사고력, 표현력 기르기(2)



사고력, 표현력 기르기2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단무지다! 단무지! 아삭하고 달콤한 별난반점 단무지!

오동이 눈앞이 노랗게 물들며 코끝에 새콤 짭조름한 향기가 날아들었다.

새콤한 향기 사이로 반가운 소리도 함께 날아 들어왔다. / “뽀짝 마라!” / 계단을 타고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였다. / 그제야 오동이는 깨달았다. 조금 전에 도둑이 말한 ‘그 녀석’은 오동이가 아니라 헬멧똥이었던 걸! 오동이가 헬멧똥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X사건이 사실은 배달을 하다가 낙서를 발견한 헬멧똥과 그걸 눈치챈 도둑 사이의 치열한 머리싸움이었던 걸 말이다.

⇒ 책의 103쪽입니다.

(나) 이제 오동이는 문을 열고 헬멧똥을 맞는다. 택배가 왔을 때도 다른 배달 음식이 와도 그렇게 한다. / 오동이는 이웃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오동이네로 찾아와서 격려도 해 주고 인사도 나눴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요즘 좀 알 것도 같네.” / 엄마는 옆집 아줌마들을 진짜 사촌이라도 맞듯 반가워했다. / 자주 얼굴을 봐서일까, 오동이도 헬멧똥이 이전 사촌처럼 친근했다. 팔자 모양 판다 눈도 더없이 정겨웠다.

⇒ 책의 109쪽입니다.

- 1) (가)에는 ‘오동이’가 ‘헬멧똥’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X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X사건의 진실을 요약하여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발표·감상·의견 나누기

⇨ (예시답안) X사건은 배달을 하다가 낙서를 발견한 헬멧똥과 그것을 눈치챈 도둑 사이의 치열한 머리싸움이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오동이는 헬멧똥을 도둑이라고 의심하며 직접 잡을 생각까지만한 것이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가이드) X사건은 낙서를 했던 도둑과 그 낙서를 발견한 헬멧똥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동이는 우연히 그 사건에 끼어들게 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2) (나)에서 X사건 이후에 ‘오동이’의 변화된 모습을 모두 쓰시오.

⇨ 배달 음식이 오면 문을 열고 배달원을 맞이했고, 이웃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헬멧똥을 정겹고 친근하게 여겼음

독서 후

정리하기: 독서 활동 돌아보기, 더 찾아 읽기



📖 정리하기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의 3단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 자신에게 맞는 책을 정했나요?
-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읽었나요?
-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잘 말했나요?
- 정한 책을 끝까지 읽었나요?

📖 더 찾아 읽기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봐요.

(예)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을 더 읽고 싶어.

(예) 암호에 얽힌 엉뚱한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을 찾아봐야지.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과 관련 있는 다른 책 더 찾아 읽기

발표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과 관련이 있는 책 중에서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세 권 골라 목록을 적도록 합니다.



읽고 싶은 책 목록

※ 아래 책들은 ‘이웃 관계와 암호’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순서	책 제목	글쓴이	출판사
1	불편한 이웃	유승희	책읽는곰
2	이웃집 공룡 볼리바르	손 루빈	위즈덤하우스
3	유령 집의 암호	임정순	가문비어린이

발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돌아보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의 3단계로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예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독서 습관 기르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서점이나 책이 많은 곳에 가면 기분이 좋다.			
새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마음이 설렌다.			
읽은 책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책 속의 등장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읽는다.			

30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어휘력 기르기

이름 :

 다음은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순간 오동이 머릿속은 엉킨 ()처럼 복잡해졌다.
- “알리바바 동화에서 X는 도둑들이 하는 ()였잖아.”
 - 그건 ‘날 잡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잡아 봐!’라는 ()와 마찬가지로 썸이다.
 - 수시로 드나드는 아이들은 범행의 최대 ()이었을 것이다.
 - 순간 오동이는 사건의 ()이 눈앞에 그려졌다.
- (나) · 별난반점에도 ㉠옥에 티가 있지 뭐가. 바로 배달부인 헬멧똥이다.
-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 97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전말 :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 ② 징표 :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 ③ 실타래 : 실을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한데 뭉치거나 감아 놓은 것.
- ④ 걸림돌 :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선전 포고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
- ㉣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독해력 기르기

이름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안 돼요! 당장 갖다 주세요. 단무지!” / 오동이는 껍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했다. / “어쩌나, 오늘은 그냥 먹는 게…….”
 오동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단무지를 빠트린 건 순전히 헬멧똥의 실수다. 오동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오동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 화가 났다. 억울했다. / 오동이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온 건 그 순간이었다. / “이 바보! 똥똥보 헬멧똥아!” /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인데도 오동이는 화들짝 놀랐다. 놀란 나머지 전화마저 뚝 끊어 버렸다.

(나) 사실 X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조그만 낙서였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낙서는 몇 시간 전, 헬멧똥이 다녀간 뒤에 생겼다는 사실이 첫 번째 증거다. / ‘오늘 우리 집을 다녀간 사람은 헬멧똥뿐이야. 어쩌면 아까 화가 나서 우리 집에 표시해 둔 건지도 몰라. 혼내 주려고 말이야. 조금 전에 몰래 와서 표시해 두고 갔나?’ / 그러고 보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평소에도 헬멧똥은 오동이를 싫어하는 눈치였다.

1) (가)~(나)에서 ‘오동이’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 오동이는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를 빠트린 헬멧똥에게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를 갖다 달라고 통화했고,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을 했다가 깜짝 놀라서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를 뚝 끊었음	(나) : 오동이는 헬멧똥이 다녀간 뒤에 생긴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를 보고, 헬멧똥이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가 나서 오동이를 혼내 주려고 몰래 와서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에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해 두고 갔다고 생각했음
---	--

2) (가)~(나)에서 ‘오동이’가 ‘헬멧똥’에게 잘못된 말과 생각은 무엇인지 쓰시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이름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302호와 303호는 단무지 갖다 준다고?”

○는 배달할 때 단무지 주는 집, X는 단무지를 안 주는 집, 그러니까 ○와 X는 헬멧똥의 단무지 배달 암호가 아닐까? 301호도 뭔가 미운 꼬투리를 잡힌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동이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이런 유치한 복수를 하다니! 치사한 헬멧똥!” / 헬멧똥의 정체는 ‘유치찬란 치사똥’이었던 것이다. / 추리에는 증거가 필요한 법이다. 오동이는 자신의 추리를 증명할 방법도 생각해 냈다. / “좋아! 그렇게 해 보면 돼!”

이제 곧 헬멧똥이 얼마나 ‘유치찬란 치사똥’인지 밝혀질 것이다.

(나) 그때였다. 오동이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복도에서 마주 보이는 놀이터, 그곳 벤치에 헬멧똥이 앉아 있지 뭔가. / 헬멧똥의 행동은 수상쩍기만 했다. 빌라 건물을 올라다보며 가웃 가웃, 그러다가 작은 노트에 뭔가를 급적급적……. 수상하다! 정말 수상하다! 왜 빌라 건물을 올라다보는 걸까? 대체 뭘 기록하고 있는 걸까?

순간 오동이 머릿속에 전깃불이 탁 켜졌다. / “집들을 감시하고 있어!”

1) 윗글에서 ‘오동이’는 ‘헬멧똥’을 ‘유치찬란 치사똥’이라고 했고, ‘헬멧똥’이 집들을 감시한다며 수상하게 여겼다. 이러한 ‘오동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2) (가)에서 ‘오동이’가 추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쓰시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이름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단무지다! 단무지! 아삭하고 달콤한 별난반점 단무지!

오동이 눈앞이 노랗게 물들며 코끝에 새콤 짭조름한 향기가 날아들었다.

새콤한 향기 사이로 반가운 소리도 함께 날아 들어왔다. / “꼼짝 마라!” / 계단을 타고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였다. / 그제야 오동이는 깨달았다. 조금 전에 도둑이 말한 ‘그 녀석’은 오동이가 아니라 헬멧똥이었던 걸! 오동이가 헬멧똥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X사건이 사실은 배달을 하다가 낙서를 발견한 헬멧똥과 그걸 눈치챈 도둑 사이의 치열한 머리싸움이었던 걸 말이다.

(나) 이제 오동이는 문을 열고 헬멧똥을 맞는다. 택배가 왔을 때도 다른 배달 음식이 와도 그렇게 한다. / 오동이는 이웃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오동이네로 찾아와서 격려도 해 주고 인사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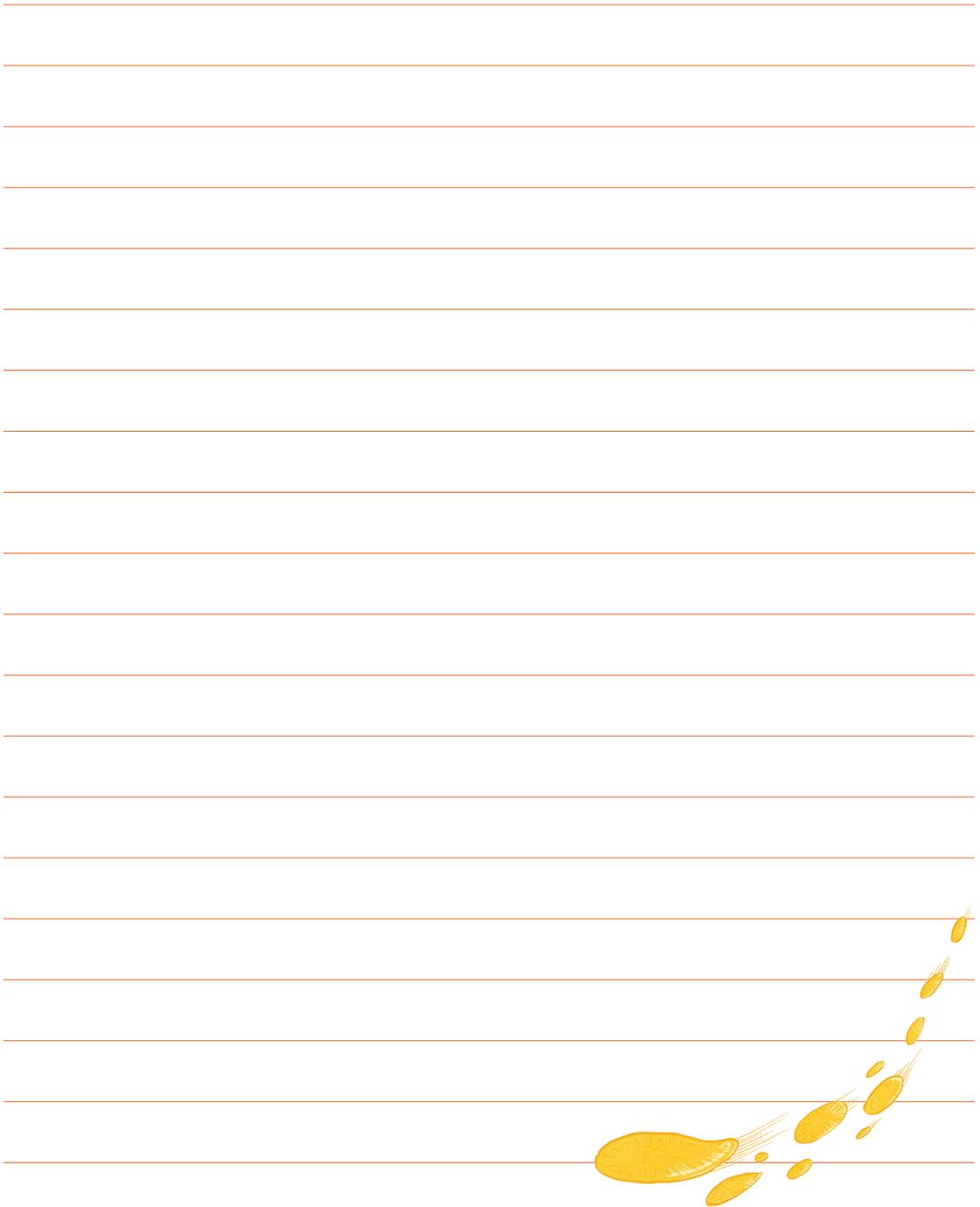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요즘 좀 알 것도 같네.” / 엄마는 옆집 아줌마들을 진짜 사촌이라도 맞듯 반가워했다. / 자주 얼굴을 봐서일까, 오동이도 헬멧똥이 이전 사촌처럼 친근했다. 팔자 모양 판다 눈도 더없이 정겨웠다.

1) (가)에는 ‘오동이’가 ‘헬멧똥’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X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X사건의 진실을 요약하여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2) (나)에서 X사건 이후에 ‘오동이’의 변화된 모습을 모두 쓰시오.

⇨



웅진 주니어

값 9,000원



9 788901 212821
ISBN 978-89-01-21282-1
ISBN 978-89-01-05987-7 (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인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알도록 주의하세요.